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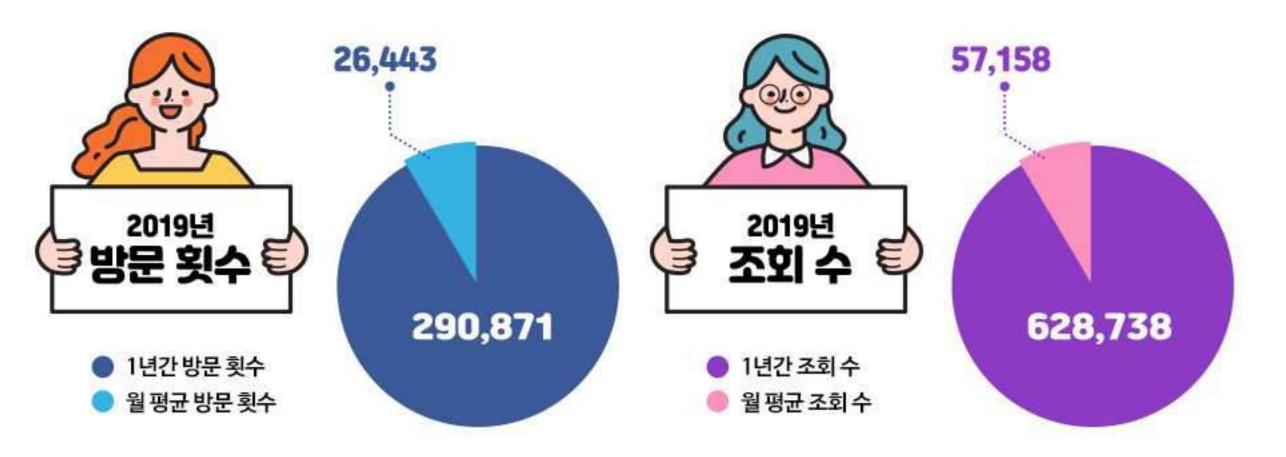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1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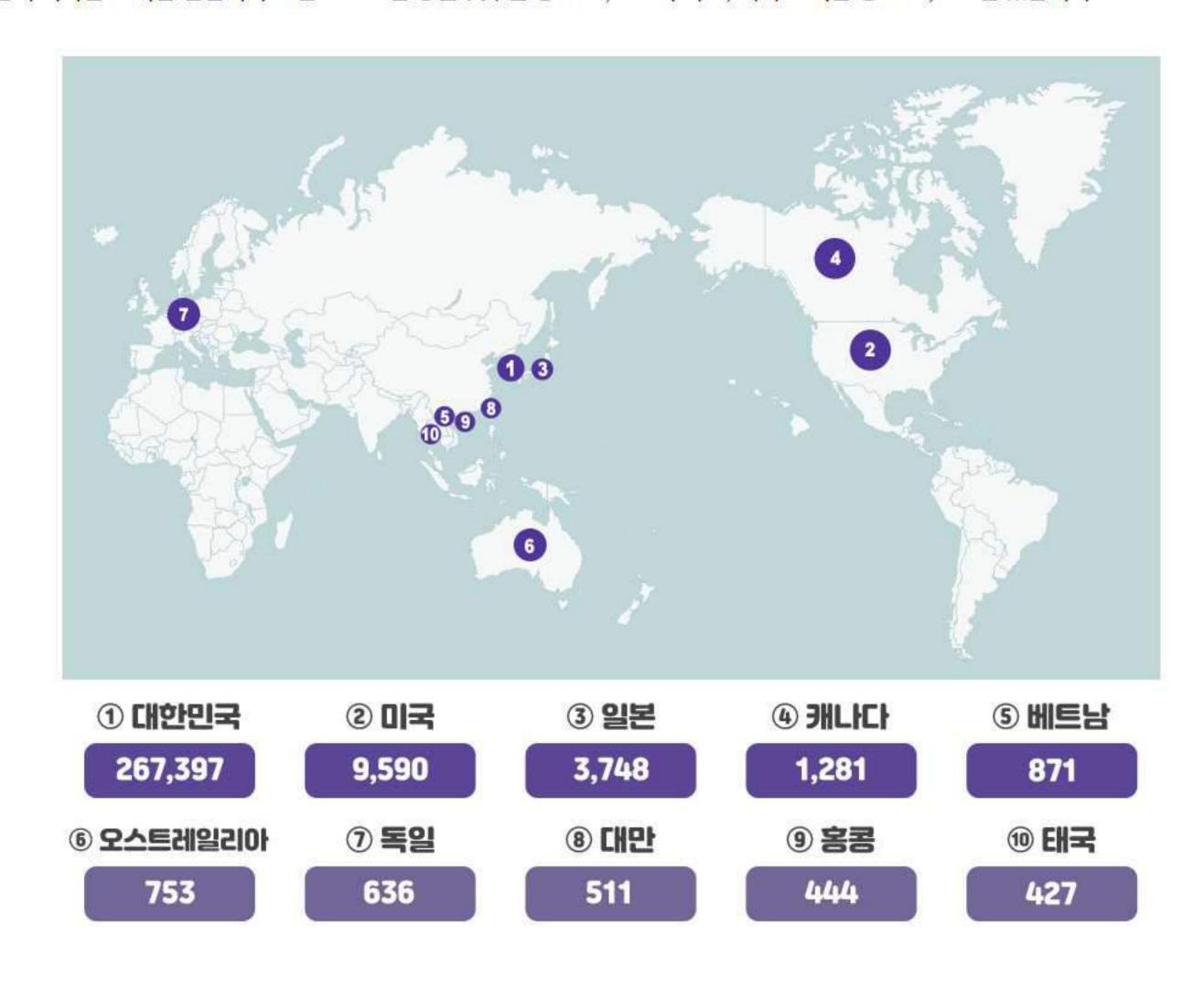


올 한 해 동안 《쉼표, 마침표.》와 함께한 독자는 몇 명일까요? 가장 사랑받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또 어느 나라에서 많이 봤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쌓인 《쉼표, 마침표.》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쉼표, 마침표.》의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쉼표, 마침표.》의 한 달 평균 방문 횟수는 26,443회이고, 한 달 평균 기사 조회 수는 57,158건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 약 2건의 기사를 조회한 셈입니다. 1년으로 보면 방문 횟수는 총 290,871회 이고, 기사 조회는 총 628,738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의 독자들이 《쉼표, 마침표.》의 이야기를 읽어 주었습니 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를 찾아 주었습니다.

2019년 《쉼표, 마침표.》의 기사 중 가장 많이 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독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의 '언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왜 '담임'을 [다님]이라고 발음할까? '였습니다. '담임'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준 발음과 일상적 발음 사이의 간극을 포착하고, 그와 관련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 준 글이었습니다.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를 소개한 '나도 모르게 아직 쓰던 말들', 어색한 높임 표현을 고찰한 '공손성이 문법성 을 이길 때' 등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을 다룬 기사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 다.

2019년 '우리말 달인' 도전자 중 만점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총 28,120명이 '우리말 달인'의 문제 풀이에 도전했고, 그중 24,766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말에 관심이 많은 《쉼표, 마침표.》의 독자들답게 약 88%의 도전자가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쉼표, 마침표.》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리말 이야 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쉼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특별한우리말



★ 궁금한우리말 ▶ 우리말,그리고사람

공공언어란 공공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공문서나 민원 서류, 보도 자료나 공고문, 안내문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바르고 쉬워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언어에 쓰인 용어가 쉬운지 어려운지 판단할 때에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는 '어려운 공공 용어 진단 기준 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어려운 공공 용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행정 기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 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구본관 교수를 만나 봤다.



'어렵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명확한 기준으로 만든다

어떤 언어 표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려운 공공 용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공공 용어란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용어'라고 하면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지만, 공공 용어는 전문 가들끼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이번 연구의 범위에 공공 기관의 용어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까지 포함했는데요. 이는 공공 기관의 용어, 더 나아가서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언어의 난도는 인지도, 즉 들어본 적이 있느냐와 관련이 많습니다. 고유어인지, 한자어 혹은 외래어인지 같은 어종 기준과 그 언어 표현이 복합어인 경우 각 구성 요소의 난도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R&D'처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예타' 같은 줄임말을 쓰는 것도 공공 용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각각 '연구 개발', '예비 타당성'이라고 쓰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려운 공공 용어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계신지?

이름 그대로 공문서나 공공 기관의 보도 자료에 나오는 언어 표현의 난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연구입니다. 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공 용어의 난도를 측정하고, 앞으로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용어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공공 용어 내지 공공언어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 팀은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쉬운 공공 용어를 쓰는 데에 필요 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에는 앞에서 말한 표기 방 식의 문제(로마자를 쓰느냐의 문제), 복합어일 경우 구성 요소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릴 정도로 쉬운 말인지 여부, 줄임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고쳐 말하면 공공 용어와 공공언어에는 가능하면 로마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지 말고, 쉬운 구성 요소로 복합어를 만들고, 가능하면 줄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지요. 실천 방향 역시 이를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지요. 결국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아닌일만 국민과 소통하기 쉬운 언어 표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중에 가닿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서 발표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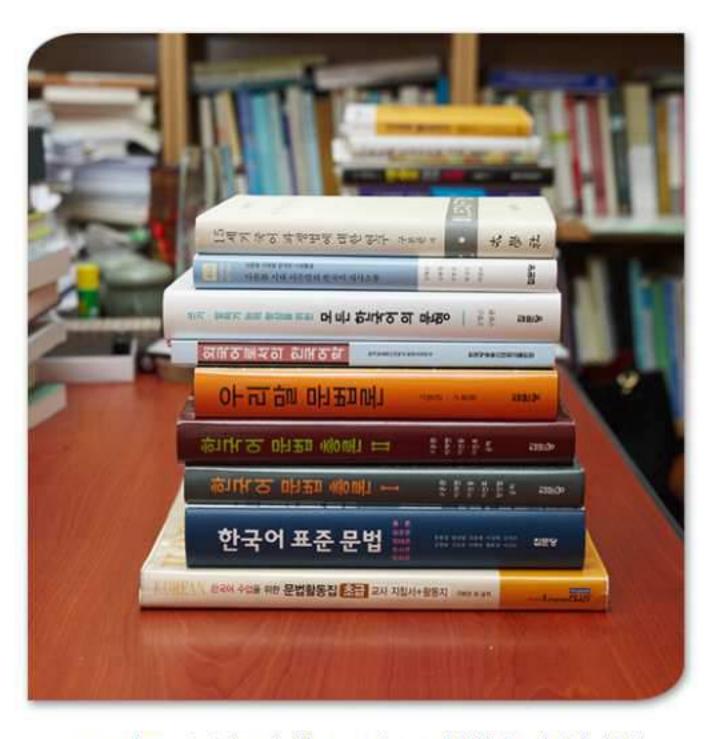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중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새말모임'으로 순화어를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사용은 결국 대중의 몫입니다. 북한에도 수많은 순화어가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어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 등을 위해 순화어를 많이 만들고 홍보도 하지만 실제로 정착된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락, 나들목, 갓길' 등 잘 정착된 순화어도 있지요. 순화어가 정착되려면 활발한 홍보와 지속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어휘들이 잘 정착된 것이 이를 증명하지요. 또한 단어를 만드는 방법 면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잘 정착되는 듯합니다. 줄임말의 경우 대부분 유행어로 쓰이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어 형성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순화어를 잘 만들고, 잘 홍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물씬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국어교육과에서 문법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국어학자로서 형태론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조어법 연구는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국어학, 즉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연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문법 교육 연구는 언어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 특히 초중고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말 문법론', '한국어 문법 총론 1, 11' 등 30 여 권의 국어학 및 문법 교육 관련 책을 저술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어학 관련 책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문법 교육론 관련 저술 활동을 더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어 문법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에 관한 책도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 국어 조어법에 관련된 저작을 하는 것으로 국어학자로서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구본관 교수의 저서들. 이외에도 그동안 쓴 국어학 책이 30여 권에 달한다.

구본관 교수 팀이 진행 중인 '어려운 공공 용어 진단 기준 마련' 사업은 이달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쉽고 바른 공공 용어 쓰기 문화의 확산을 위해 중대한 첫 삽이 떠진 셈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 말이다.

글: 정성민 사진: 김영길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우리말



★ 놀라운 우리말 ▶ 우리말을 여행하다

가을이 작별을 고하던 11월 마지막 주, 경기도 의왕시 갈미한글공원을 찾았다. 공원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한글 자모를 본뜬 멋들어진 조형물이 맞아 준다. 바쁜 일상을 잠시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여유롭게 한글공원을 거닐어 봤다.



산책하며 느끼는 한글의 소중함

갈미한글공원은 의왕시에서 태어난 일석(一石) 이희승 선생(1896~1989)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만들었다. 공원에는 '한글'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부담 없이 둘러보기 좋게 트인 공원이다. 아늑해서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기도 하다. 공원 주변으로 모락산 등산로, 백운호수 등이 있어 함께 둘러봐도 좋다.



▲ 조형물 <어울림>

편에는 한글 조형물과 긴 의자가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에는 〈어울림〉이란 제목의 조형물이 돋아나 있다. 돌을 'ㅅ, ㅇ, ㄱ' 등의 자음 모양으로 깎아 만들었는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로도 쓰이는 게 재미있다. 저 멀리서 눈으로만 감상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누구나 걸터앉아 다리쉼할 수 있는 조형물이기에 친근함이 느껴진다.

모든 백성들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간 한글의 모습을 잘 담은 듯하다. 잔디밭을 지나 도로변으로 나오면 한글 자음을 연결해 공모양으로 만든 〈한글의 조형미〉라는 작품이 나타난다. 한글 자음들이 상하좌우의 구분 없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갈미한글공원은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다. 도로 왼

▲ 조형물 <한글의 조형미>



▲ 조형물 <나랏말씀>

도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동산에도 한글 조형물들이 놓여 있다. 그중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나랏말씀)이란 작품이다. 한글 자음 14자를 이용하여 모음의 기본자인 '·(하늘), —(땅), | (사 람)'를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곁에 두어 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느긋한 걸음으로 15~20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는 아담한 공원이지만, 볼거리는 충분하다. 아이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기에도 좋은 장소다. 그러나 의왕시에서 태어난 이희승선생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그의 업적을 알리는 안내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국어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이희승 선생

이희승 선생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당시 광주시 의곡면 포일리)에서 태어났다. 갈미한글공원에 가면서 그의 생가도 함께 둘러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지금은 사라지고 없단다. 2017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그의 생가가 있던 자리에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였기 때문에 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희승 선생이 태어난 곳이라는 표시 하나 남겨 두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우리말 연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인'의 생가를 왜 보존하지 않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희승 선생은 소년 시절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을 처음 접하고 국어 연구에 뜻을 세웠다. 그는 목표대로 평생 국어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30년 조선어학회에 들어가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 '표준어사정(1937)' 사업에 참여했다.

1942년에는 일본 정부가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고문하고 투옥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 해방 이후에 그는 우리말 연구에 더욱 몰두했다. 1961년에는 25만 7,854개의 어휘가수록된 《국어대사전》을 간행해 국어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이희승 선생은 《조선어학논고》(1947), 《국어학 개설》(1955), 교과서 《초급국어문법》(1949)과 이것을 보완한 《새고등문법》 (1957) 등 우리나라 문법 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저서를 많이 남겼다.



▲ 검은 모자를 쓴 이희승 (사진 출처: 새국어생활 2012년 겨울 호)

특히 《국어학 개설》은 우리나라 국어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집 ≪박꽃≫, 수필집 ≪벙어리 냉가슴≫, ≪딸깍발이≫ 등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이희승 선생의 후손과 제자들은 2002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그의 자택 자리에 일석학술재단을 세우고, 2003년부터 '일석국어학 상'을 만들어 국어학자들을 격려하며 선생의 유지를 잇고 있다. 평생 우리 말글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며 살다 간 이희승 선생. 그는 왜소한 체구였지만, 그때도 지금도 우리말 역사에 우뚝 서 있는 큰 어른임이 틀림없다.

갈미한글공원에서 시작한 우리말 산책은 집에 돌아와 이희승 선생의 생애를 더듬어 보며 끝이 났다. 수많은 국어학자들의 피땀이 깃든 우리 말글을 더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솟아난, 짧지만 알찬 나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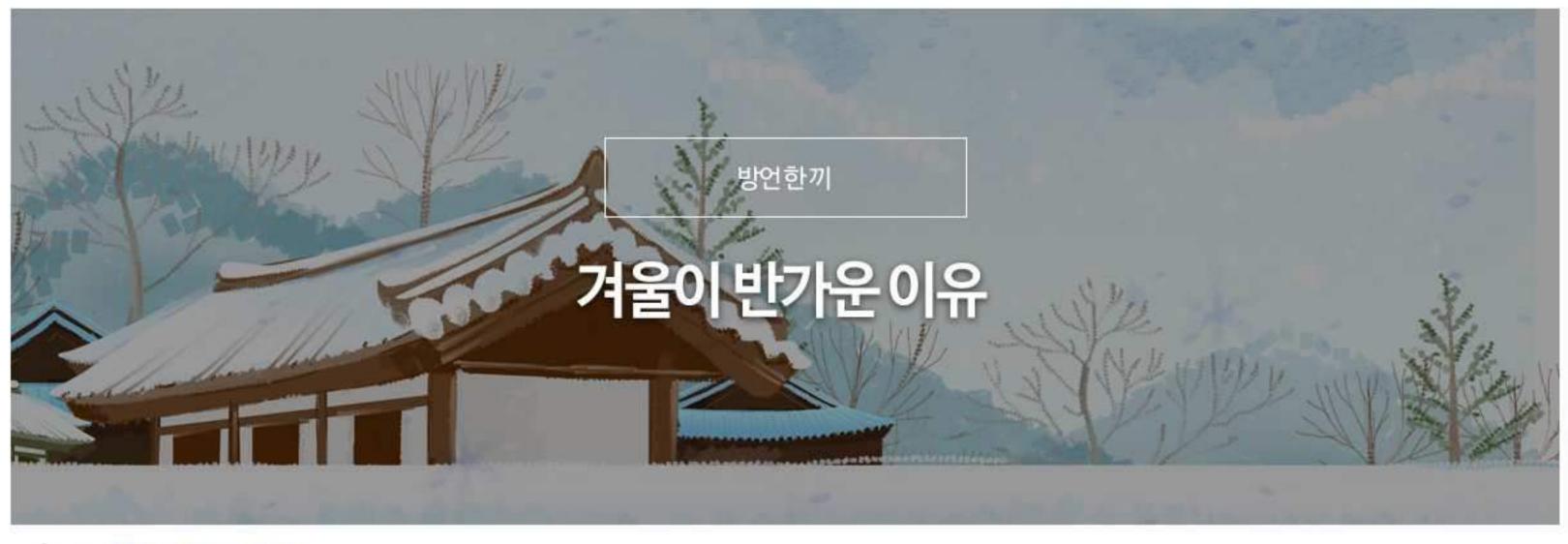
궁금한 우리말 놀라운 우리말

쉬어 가는 우리말

쉬어가는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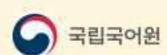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 ▶ 쉬어가는우리말 ▶ 방언한끼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이 왔어요. 시골 할머니 덕의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 새콤달콤한 귤을 양껏 까먹으면 추운 겨울도 행복하게 느껴지지요. 겨울에 쓸 수 있는 방언을 알려드릴게요.





<u>♥ 백아궁지</u>

'아궁이' 의 강원 방언

"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더 넣고 와라. "



<u>© 아르목</u>

'아랫목' 의 전남 방언

" 추우니까 여기 아랫목 따뜻한 데 앉으세요."



◎ 프투배미

'고드름' 의 충남 방언

" 지붕 끝에 고드름이 볼 만하다."



궁금한 우리말

놀라운 우리말

쉬어 가는 우리말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1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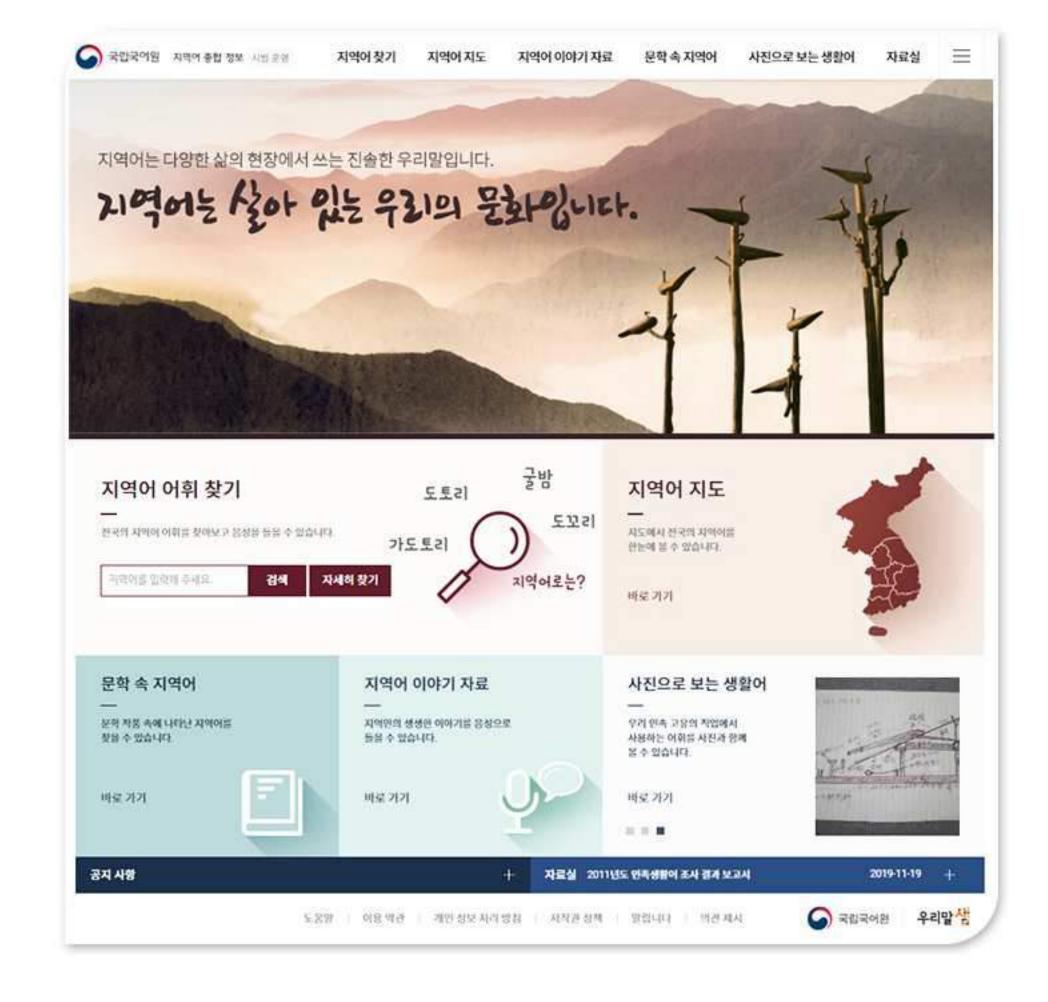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의 지역어 정보들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오는 2020년 1월 중에 공개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공개에 앞서 지역어 정보의 제시 방법을 점검하고, 누리집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시연회'를 지난 12월 4일(수)에 개최하였다. 시연회에는 2004년부터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어를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지역어 음성을 한 글자한 글자 글로 옮긴 지역어 조사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지역어 종합 정보'는 국립국어원이 현재까지 수집한 지역어 정보 약 20만 건을 국민이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역어를 균형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의 지역어를 시·군 단위로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2019년 현재 전국 162개 시군 중 131개 시군을 조사하여 약 20만 항목의 지역어 자료와 음성을 수집하였다. 2020년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시군을 마저 조사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 초에는 2019년까지 수집한 지역어 정보를 담아서 누리집을 시범 운영 하고,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가 완료되는 2020년 말에는 전국의 지역어 정보를 모두 담아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어 종합 정보'는 지역어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누리집의 지역어 정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지역어 어휘 찾기 | 지역어 지도 | 지역어 이야기 자료 | 문학 속 지역어 |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
|-------|-----------|--------|------------------|----------|----------------|
| 정보 건수 | 약 16만 항목 | 100장 | 147개 주제/ 50시간 | 2,012개 | 764개 |

■ 지역어 어휘 찾기

지역어 검색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지역어나 표준어로 어휘를 검색하면 해당 어휘에 대한 전국 시군의 지역어와 음성을 보고 들을수 있다. 1,200개 어휘에 대한 전국 131개 시군의 지역어와 음성, 대응 표준어, 사용 지역 등을 제시한다.

■ 지역어 지도

특정 어휘에 대한 지역어의 전국적 분포를 한반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방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100개 어휘의 지역 어 지도와 전문가 해설을 보여 준다.

■ 지역어 이야기 자료

토박이 화자의 생생한 지역어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전국 9개 도 25개 시군의 지역어 이야기 자료 50시간 분량의 음성과 지역어, 표준어역을 제공한다.

■ 문학 속 지역어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어를 어휘별 보기, 지역별 보기, 작가·작품별 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775개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지역어 예문과 대응 표준어, 해설을 제공한다.

■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전통적인 직업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17개 분야로 나누어진 직업생활어 764개의 사진과 어휘, 예문 등을 제공한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특별한우리말



▶ 궁금한우리말 ▶ 이토록특별한우리말

궁금한 우리말

사라져 가는 제주 지역어를 보존하고자 제주 어르신들이 발 벗고 나섰다. 기억 속에서 생생한 삶의 조각들을 길어 내 가장 익숙한 제주 말로 글을 쓰고, 주름진 손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 책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에서 생애 첫 그림책을 펴낸 어르신 작가들과 이 학교를 이끄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강영미 관장을 만났다.

"아부지, 무사 이추룩 햄수과?*" "아기가 걸령 넘어지지 안 허느냐? 그럼 아기가 아프커냐 안 아프커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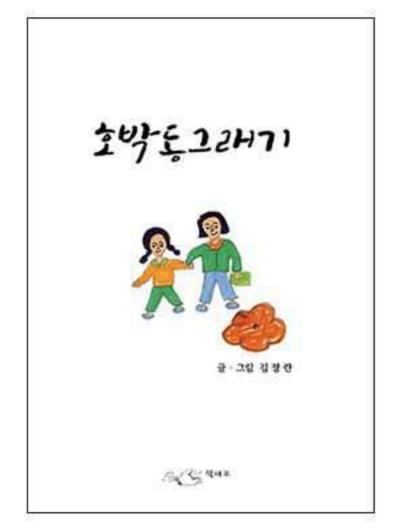
*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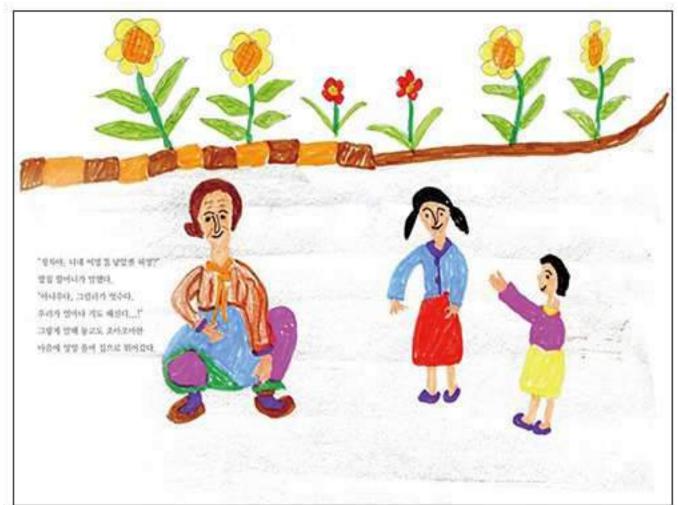
지난 12월 8일, 수원시 노기사진관에서는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에서 만든 그림책의 원화 전시와 작가들이 직접 책을 읽어 주는 낭송회가 열렸다. 양달성(76), 김정란(65) 부부 작가가 자신들의 그림책《대죽부루기》, 《호박동그래기》를 낭송하는 내내 노기사진관을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낭송 후에는 책에 쓰인 제주 지역어의 뜻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낭송회를 마친 두 작가의 얼굴에 행복하고 뿌듯한 표정이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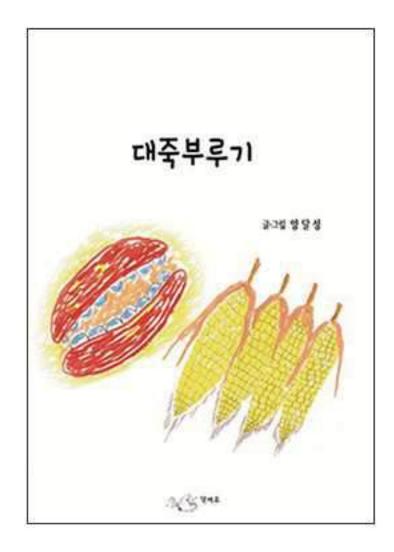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에서는 제주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제주 지역어로 쓰고, 그림까지 직접 그려 그림책을 만든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강영미 관장이 사라져 가는 제주 지역어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2016년에 만들었으며, 매년 8명 내외의 작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그림책 31권을 발표했다. 강영미 관장은 4년 동안 그림책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주 지역어가 소생할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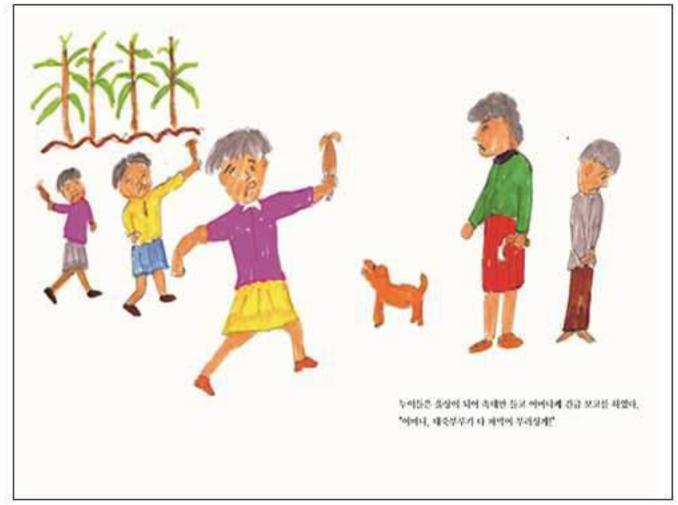
"어르신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제주 지역어로 쓰고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내면 그것이 바로 역사책이고, 제주어 사전인 셈이죠. 이 그림책들이 세대를 잇는 매개체가 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에요. 제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제주의 지역어와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에서도 저희 작가님들을 취재하러 오셨잖아요. (웃음)"





▲ 《호박동그래기》의 표지와 내지





▲《대죽부루기》의 표지와 내지

이날 낭송회에서 양달성, 김정란 작가가 직접 읽어 준 《대죽부루기》와 《호박동그래기》는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였다. '대죽부루기'는 옥수수를 뜻하는 제주 말로, 양달성 작가가 어린 시절 배고픔을 못 이겨 옥수수를 훔쳐 먹은 이야기이다. '호박동그래 기'는 애호박을 뜻하는데, 김정란 작가의 여동생을 부르던 별명이기도 하다. 딸부잣집이었던 김정란 작가의 집에서 또 딸이 태어나 벌 어진 이야기를 쓴 것이다.

양달성 작가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도서관 관계자들의 권유로 그림책학교에 참여하게 됐다.

"강영미 관장님께서 내 또래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제주 지역어를 잘 모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지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 리 아이들도 제주에 사는 아들만 제주 지역어를 조금 알지, 육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자리를 잡은 딸들은 잘 몰라요. 표준어만 써 온 손자 녀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란 작가는 남편 양달성 작가의 권유로 합류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은 생애 처음이었다. 그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 그림책 만들기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설마 진짜 책이 나올까?' 싶었어요. 그림을 그려 본 적도 없고.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선생님 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즐겁게 배웠어요. 옛날 일을 회상한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었고요. 책 덕분에 주변에서 축하 도 많이 받고, 이렇게 육지에 와서 인터뷰라는 것도 하고 감격스럽네요."



사라져 가는 제주 지역어를 살리는 작은 날갯짓

2010년 유네스코는 제주 지역어를 '소멸 위기 언어 레드북'에 등재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소멸 위기의 언어를 심각도에 따라 1단 계부터 5단계로 나누는데, 제주 지역어를 그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 마지막 5단계는 '소멸한 언 어'를 뜻하는 만큼 제주 지역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민 중에서 60~70대 이상은 제주 지역어로 소통하지만, 30~40대는 제주 지역어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70대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줄어들수록 제주 지역어의 생명도 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의 활동은 의미가 크다. 실제로 김정란 작가의 손자는 할머니의 그림책을 읽고 제주 지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육지에 사는 고등학생 손자가 제 책을 읽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주 지역어 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주 지역어의 뜻을 자꾸 물어보더니, 제주 지역어를 제대로 배워 보고 싶대요. 예전에는 한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를 만나면 제주 지역어로 말을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책을 내길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과 학생 모두 행복하게 만든 그림책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의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본 적이 거의 없다.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다. 그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려 책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영미 관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림책학교 1년의 과정 동안 총 25번 이상 어르신들과 만나며, 그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신뢰 관계를 쌓는 데 할애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나 고를 말 엇쪄(나 할 말 없어). 못 그리키여(못 그려).'라고 손사래를 치세요. '나 안 하켜(나 안 할래)!'하면서 가방을 내던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만날수록 서로 정이 깊게 들어요. 굽이굽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살던 집, 어릴 적 친구, 가족, 옛 놀이, 옛 음식 등 소소한 기억부터 차근차근 끄집어냅니다."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수업 풍경

서로 친해질수록 진한 감정이 오간다. 그동안의 인생에서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등을 꺼내 놓다 보면 수업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거나, 눈물 콧물을 훌쩍이며 서로 얼싸안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다.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울고 웃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희 선생님들도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위안을 받아요.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실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이야깃거리를 정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림책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생활 소품들, 기억 속의 우리 집, 주변의 나무 등을 그려 오는 숙제도 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선생님들이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숙제를 한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들은 틀에 박히지 않아서 더 감동을 준다.

강영미 관장은 앞으로 제주 어르신들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한다. 가장 먼저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어르신 작가들이 직접 전시관 지킴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제주 지역어와 역사, 문화를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꿈이다. 제주 지역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는 그.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세상에 꺼내 놓은 어르신들 덕분에 제주 지역어의 내일이 어둡지만은 않다. 아니, 감히 밝다고 말해 본다.



놀라운 우리말

쉬어 가는 우리말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우리말



★ 놀라운우리말 ▶ 찰나의우리말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는 제프리 홀리데이라는 미국 국적을 가진 교수님이 계신다. 서로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연구 얘기부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한번은 한국어의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홀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흥미롭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란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둘째는 한민족이 아닌 사람, 셋째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것이 그분의 설명이었다.

우리 둘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외모에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이 가져야 하는 외모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외모로 보았을 때 한민 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쉽게 외국인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국적이야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민족적 정체성은 대체로 외모로 쉽게 드러난다. 다양한 민족과 함께 살아 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이러한 고정 관념이 생겼으리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홀리데이 교수의 이야 기였다. 홀리데이 교수는 관광 안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관광 안내소에 갔더니 안내 책자의 구분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된 것은 '내국인용' 아래, 기타 다른 언어로 된 것은 '외국인용(for foreigner)' 아래 꽂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국어 안내 책자를 집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자신은 '내국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내 책자의 분류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고 분류되어 있다는 것의 이면에는, '내국인'은 한국어를 잘하고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내국인과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으로 구분되어 있는 안내 책자 비치대의 문구는 읽는 사람의 국적과 언어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한국어를 잘하지만 내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집으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처럼 읽힐 수도 있고, 내국인이지만 한국어보다는 다른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당신은 내국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 말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고 되어 있는 안내 책자의 비치 구분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 내국인은 한국어, 외국인은 영어?

또 한 가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는 구분의 이면에는 소위 '외국인'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영어와 한국어, 둘 모두를 잘 읽지 못하는 외국인 이라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안내 책자가 반드시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 가운데는 영어 외에도 일본어나 중국어 등 다른 언어로 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 '내국인용'이나 '외국인용(for foreigner)'의 구분 자체가 꼭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런 구분 없이 언어별로 비치해 두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언어별로 정리만 되어 있다면 굳이 어떤 언어인지를 밝힐 필요도 없다. 언어별로 정리된 안내 책자를 보고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편한, 혹은 자신이 읽고 싶은 언어로 된 책자를 선택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안내 책자의 선택 기준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지 제공자의 몫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안내 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 r)'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얼마나 적절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된다. 안내 책자를 만들 때 한국어 책자는 꼭 내국인들에게 한정하여 읽힐 것을, 그리고 영어 혹은 중국어 등 외국어 책자는 반드시 외국인들에게만 한정하여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사용자의 국적이 아니라 사용자가 참고하고자 하는 언어가 안내 책자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는 비치 기준 때문에 '언어'가 아니라 '국적'이 선택의 기준으로 읽혀 결국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이라는 구분이 생기게 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누구의 관점으로 범주를 나누고 그 범주에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내국인용'과 '외국인용(for foreigner)'의 구분 이면에는 책 자를 제공하는 쪽의 관점만이 담겨 있다. 이 책자를 집어 들 사용자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문제가, 그 관점으로부터 소외된 사용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홀리데이 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해 필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안내 책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기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안내 책자를 집고 싶은데 '내국인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뜻 그 책자를 집어 들지 못하는 홀리데이 교수의 모습이 머 릿속에 그려지면서 홀리데이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울러 이런 구분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도 국어학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관점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신의 관점만으로 보는 세상은 우물 안 개구리가 보는 우물 크기의 하늘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광활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 하늘을 우물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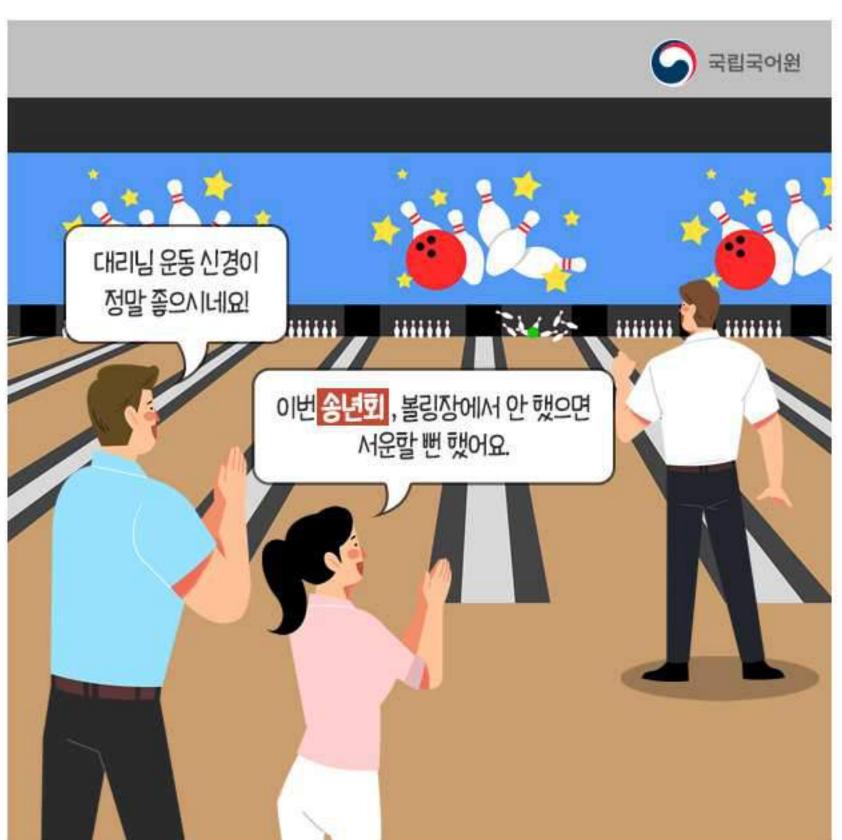


♠ ▶ 쉬어가는우리말 ▶ 우리말의재구성











요즘은 술자리 **송년회** 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작은 **송년회**, 공연을 보는 문화 **송년회** 나 봉사 **송년회** 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mark>망년회</mark>'를 다듬은 말로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베푸는 모임'을 뜻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일본어 투 표현을 쓰는 습관과도 작별해 보세요!